

전환기에 처한 중국경제와 우리 산업의 대응전략

요 약

중국경제는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고, 질적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미·중 무역분쟁으로 새로운 경쟁환경이 조성되는 등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경제의 변화는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로 낮아졌지만, 그 성장 규모로는 매년 웬만한 국가 규모의 시장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다. 중국의 질적 성장은 우리 산업과 경쟁을 심화시켜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그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중국의 시장 개방, 기술보호 강화 등을 통해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도 존재한다. 이러한 중국의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산업의 대중 경쟁전략은 개방적 혁신 및 융복합을 통해 제품 차별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아직 우리의 기술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의 산업은 초격차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중 협력전략으로 중국의 기초기술,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우리 제품의 차별화 및 프리미엄화하는 데 활용하고, 전자상거래, 핀테크, 스마트 헬스케어, 공유경제, 창업시스템 등을 우리 제품 및 서비스의 판로 개척 및 창업 등에 이용해야 할 것이다. 대중국 리스크 완화를 위해 중국투자의 현지화 및 합작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생산기지로의 진출을 확대하여 대중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1. 서론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해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는 과거와 매우 다른 양상을 띠고 있으며, 변화의 방향성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성장을 구가해오던 중국경제는 성장률이 크게 낮아졌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성장도 과거 수출 및 공업 중심에서 내수 및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양적 성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질적인 성장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이는 이미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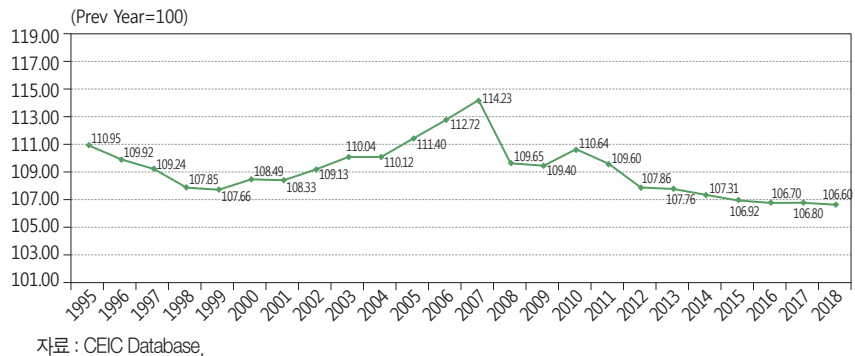
중국의 부상에 대해 미국의 견제가 본격화되면서 미·중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도 중국경제로서는 매우 중요한 도전요인이다. 미·중 분쟁으로 인해 무역 규모의 위축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중국은 자체 시장 개방 강화와 더불어 지적 재산권 보호 등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하고 매우 강력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 중국경제는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이러한 중국경제를 보는 시각은 매우 다양하고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것이 사실이다.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고,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중국경제의 다양한 변화는 우리 경제에 한 방향으로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고, 변화의 양상에 따라 다른 영향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영향이라는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응에 따라서는 영향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

2. 낮아진 중국 경제성장률의 의미와 전망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거의 10% 내외의 성장을 이어오다 2011년 9.5%로 한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10%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2012년 7%대, 2015년 6%대를 기록하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작년 중국은 6.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올해 1/4분기는 6.4%까지 떨어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6%대의 성장률은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낮은 수준이 회복되지 않고 고착화하고 있는 것이 과거와 크게 다

〈그림 1〉 중국의 경제성장률 변화 추이



른 양상이다.

이에 따라 올해 중국 정부의 경제성장 목표나 일반적인 전망도 작년에 비해 다소 낮아진 수준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과거와 달리 6.0~6.5% 구간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전문가들과 중국 국내외 기관들의 전망도 올해 중국경제 성장률을 6.2% 내외로 작년에 비해서는 낮게 잡고 있다. 성장추세를 보면 결국, 과거의 높은 성장률과는 다른 성장률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중국경제에 있어 성장률만큼 중요한 거시지표가 실업률인데, 성장률이 높을수록 실업률은 낮아진다. 과거 중국경제는 높은 생산가능 인구증가율과 농민공의 도시 유입으로 높은 성장률이 아니면 실업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들었지만, 최근 인력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숫자가 적어지면서 낮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실업문제는 오히려 더 완화되는 상황이다. 2018년만 하더라도 중국의 도시등록 실업률은 3.8%로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도시 신규취업자 수에 있어서도 목표치를 상회하는 성과를 보였다.

〈표 1〉 2019년 중국의 주요 거시경제 목표

	GDP 성장률	CPI 상승률	도시 신규취업자수	GDP대비 재정적자
2019년 목표	6~6.5%	3% 내외	1,100만명 이상	2.8%
2018년 목표	6.5% 내외	3% 내외	1,100만명 이상	2.6%
2018년 실적	6.6%	2.1% 내외	1,361만명 이상	2.6%
2017년 목표	6.5% 내외	3% 내외	1,100만명 이상	3.0%
2017년 실적	6.9%	1.6%	1,351만명	3.7%

자료 : 中国政府工作报告(2018), CEIC.

미·중 무역분쟁 등 외부적 요인이 해결되더라도 중국경제는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세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경제가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거나 과거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중국경제는 성장잠재력이나 소비수준의 향상, 도시화의 진전 등을 기반으로 향후 10여 년 동안도 5~6%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3.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 추진

(1) 질적 성장을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

1) 제조업의 구조변화 정책

중국의 질적 성장 정책은 2006년 시작된 11차 5개년 계획에서 이미 강조되기 시작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행이 다소 늦추어졌다. 이를 본격화한 것은 2011년 시작된 12차 5개년 계획 기간부터였고, 그 대표적인 정책이 신산업 육성을 천명한 “전략형 신형산업 육성전략”이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질적 성장을 통해 산업 대국에서 산업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 2015년의 “중국 제조 2025”이다. 중국 제조 2025는 단순히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제조업의 규모, 품질, 자국 브랜드, 산업의 효율 및 수익률, 산업구조, 혁신능력, 녹색발전, 정보화 등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도 정부차원에서 제조업 혁신센터(공업기술연구기지) 건설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제조업의 새로운 혁신시스템을 건설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제조부문도 스마트제조공정의 도입을 확대하여 생산효율을 대폭 제고하며, 핵심기초부품, 선진기초제조기술, 핵심기초재료, 산업기술기반 등 공업 기반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국 제조 2025에서 육성하겠다고 밝힌 10대 산업도 차세대정보기술(반도체, 정보통신, OS 및 산업용 S/W), 고정밀수치제어 및 로봇, 항공우주장비, 해양장비 및 첨단기술 선박, 선진궤도교통설비, 스마트자동차를 포함하는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설비, 농업기계 장비, 신소재, 바이오 의약 및 고성능의료기기 등으로서 대부분의 중요 산업이 포괄되어 있어, 핵심산업의 신산업부문을 동시에 육성시키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2)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육성정책

중국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4차 산업혁명관련 산업의 육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5년 발표한 “인터넷 플러스(+)” 전략이 대표적인 정책으로 산업과 사회 전반을 인터넷, 즉 정보화와 결합하여 스마트한 사회 및 산업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명시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관련되는 정책의 대부분이 4차 산업혁명관련 기반기술 및 관련산업 육성에 집중되어 있다. 2016년 이후만 하더라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매우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었는데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 통신, 클라우드 컴퓨팅 등 4차 산업혁명관련 기반기술뿐만 아니라 물류, 의료, 제조, 스마트 홈 등에서의 4차 산업혁명기술 활용, 드론, 로봇, 커넥티드 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제품의 육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3) 창업 및 혁신 정책

중국의 질적 성장의 하나로 창업을 통한 혁신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2014년 9월 다보스 포럼에서 리커창총리가 누구나 창업이 가능한 환경 조성, 모든 사람이 혁신의 주체가 된다는 “대중창업, 만인혁신”이라는 슬로건을 주창한 이후, 2015년 양회에서 경제발전의 양대 엔진 중 하나로 규정했다. 이후 같은 해 “창업공간 발전을 통한 대중 혁신창업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및 “대중창업, 만인혁신 장려정책 조치에 관한 의견” 등이 발표되었다. 13차 5개년 계획에서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 서비스업 발전 수준의 전면 향상, 개방된 기술거래 시장체계 및 실물경제 서비스 창업 인규베이팅 체계 구축, 과학기술 혁신창업 지원 금융체계 정비 등 창업지원정책을 정비하였다.

4)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정책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도 산업의 질적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종합적인 발전계획인 5개년 계획뿐만 아니라 중국 제조 2025와 같은 제조업 발전정책에도 오염배출규제를 일반 목표가 아닌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강제성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는 친환경생산설비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생산시설의 친환경화, 친환경자동차 등 친환경제품으로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서비스산업 주도의 산업발전

산업발전에 있어 제조업의 중요성이 다소 떨어진 반면,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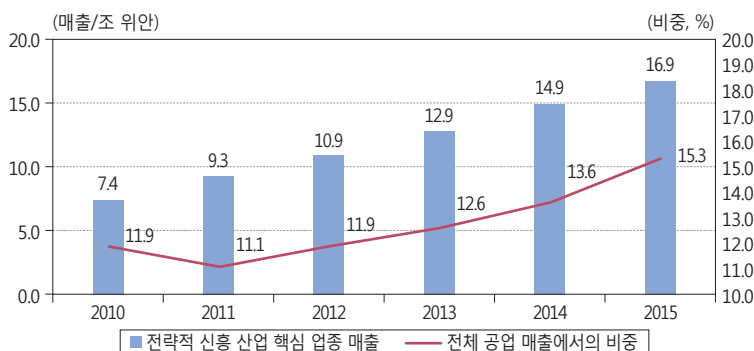
요해지고 있다. 정책적 차원에서도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산업의 비중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13차 5개년 계획에서는 2015년 50.5%인 서비스산업의 비중을 2020년 56%로 5.5%포인트 더 높인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중국은 수출이나 투자에 비해 소비 수준이 취약한 편이어서 향후 소비가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소비를 주도하는 것이 교육, 의료, 문화, 관광 등 서비스형 소비로 보고 있다.

(2) 질적 성장의 추진 현황

1) 과학기술 주도 성장 및 신산업 발전

중국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질적 성장은 이미 일정 수준 실현되고 있다.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투자는 절대 규모에 있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격차를 크게 줄여나가고 있고,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비록 질적인 측면에서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단순히 특허출원 건수에 있어서는 세계 1위일 뿐만 아니라 2017년 현재 미국의 2배에 달하고 있다. 12차 5개년 기간 동안 신산업 육성이 이루어져 중국 공업부문 매출에서 전략형 신흥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1.9%에서 2015년 15.3%로 3.4%포인트나 늘어 산업구조가 고도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만 해도 전략형 신흥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공업 전반에 비해 크게 높았고, 친환경자동차 및 반도체의 생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서비스산업에서는 정보통신, SW 및 정보기술서비스 등 서비스 신산업이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주도했다.

〈그림 2〉 중국 전략형 신흥산업의 성장 추이



자료: 국가정보센터, 중국공정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2017), 「중국전략형신흥산업발전보고」에서 재인용.

2) 4차 산업혁명 분야의 빠른 발전

4차 산업혁명관련 분야는 중국이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다. 2017년 이미 4차 산업혁명 주요 선도기술에 있어 미국에 비해서는 다소 뒤지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유사한 수준이고, 한국에 비해서는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의 대형 IT기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및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샤오미 등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IoT)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성공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스마트 헬스케어,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공유경제 등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관련 부문에서 중국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3) 중국 주도의 새로운 세계공급사슬(Global Supply Chain) 형성

중국의 변화로 인해 세계공급사슬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과거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서 노동집약적 제품의 생산기지였지만, 산업의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나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해 단순 노동집약적 산업은 해외로의 이전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직접적으로는 주변국에 대한 인프라건설에 집중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일부 산업의 생산기지를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고, 중국 자체는 보다 고부가가치 부품·소재 및 장비 등의 산업에 집중한다는 전략과 연계되어 있다. 인프라는 이를 실현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을 대신해 새로운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이고, 인도를 비롯한 서남아시아 지역도 관심지역이다. 베트남이 생산기지로 부상하면서 베트남의 무역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18년의 경우 2010년 대비 베트남의 무역규모는 3배 이상 늘어났고, 무역증가율도 매우 빠른 편이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글로벌업체들이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동남아 등 다른 지역으로 이미 이전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이 소비 대국으로 부상하면서 관련 산업의 시장을 대상으로 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4) 환경, 창업, 품질, 브랜드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질적 성장 구현

환경관련 부문에 있어서도 빠른 개선을 보이고 있는데, 작년 한 해만 해도 단위 GDP당 에너지 소모는 3.1%나 감소했다. 창업에 대한 강조를 통해 놀라울 정도로 많은 숫자의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작년 하루 평균 1만 8,000개의 창업이 이루어졌고, 이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제품의 품질 수준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어

중국 제조업의 제품품질 합격률이 2011년 88.9%로 90%에 미치지 못했는데, 2015년 95%를 넘어섰고, 2025년에는 97%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독자 브랜드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포춘 세계 500대 기업에 2017년 중국 기업이 109개로 미국의 132개에 근접하고 있으며, 혁신기업의 대명사인 유니콘 기업도 59개로 미국의 112개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비교적 빠른 성장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그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중국 전체 GDP에서 제3차 산업의 비중은 2014년 48.0%에서 2018년 52.2%까지 상승했고, 올해도 1/4분기 동안 제3차 산업의 성장률이 전체 성장률을 상회했다.

(3) 질적 성장을 강조한 2019년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전망

중국의 올해 정부 정책을 발표하는 총리의 양회 정부공작보고에서는 미·중 분쟁의 쟁점이 되고 있는 중국 제조 2025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과거에 비해 더욱 질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스마트 플러스(智能+)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플러스 정책의 확장된 의미로서 빅데이터, AI, IoT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의 활용을 통해 제조업의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개념이다. 제조업에서의 고품질 발전을 강조하고, 공업기초와 기술혁신 능력을 강화하며, 첨단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 발전을 도모하여 제조 강국을 건설한다는 중국 제조 2025의 목표를 또다시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연구개발 및 응용, 차세대 통신기술, 첨단장비, 바이오의약, 친환경자동차, 신소재 등 신흥산업군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외부로부터의 기술획득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적인 기술개발능력 향상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기초연구 및 응용기초연구, 원천적인 혁신, 관련 핵심기술 등에 중점을 두고 국가실험실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업 주도의 산학연 일체화 혁신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이 선도적으로 중요한 과학기술프로젝트를 실시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개방형 혁신체제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압력 등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해외기술 도입의 원활화와 자체적인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결국, 중국정부 차원에서 산업의 질적 성장 정책은 꾸준히 추진되고 있으며, 오히려 자율적으로 더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까지 양적 성장률이



다소 낮아진 반면, 질적 구조변화는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향후 미·중 마찰 등에 따른 미국의 견제 등으로 외부 기술획득의 제한에 따른 질적 성장 속도가 다소 느려질 가능성도 있지만, 자체적인 질적 성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은 더 강화될 수도 있다.

4. 미·중 분쟁의 상시화

작년 3월 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부과 등을 언급하면서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은 같은 해 7월 미국이 관세부과를 선언한 500억 달러 중 1차로 34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이에 대응하는 관세부과를 실시하면서 본격화되었다. 8월에는 500억 달러 중 나머지 160억 달러에 대해서도 미국과 중국 모두 관세를 부과하였고, 9월에도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중국이 6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간 분쟁은 더욱 격화되었다. 이후 미국은 2,000억 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도 현재 10%에서 25%까지 관세를 올릴 수 있다고 선언했지만, 유예기간을 두고 미·중 양국은 무역협상에 돌입했다. 유예기간이 지나 추가 관세부과가 이루어졌지만 협상 기간은 연장되었고, 협상 타결에 대한 전망은 낙관과 비관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미·중이 관세부과를 통해 본격적으로 분쟁을 시작한 지는 이미 8~9개월이

〈표 2〉 미·중 무역분쟁 이후 중국의 대세계 및 대미 수출입 증가율

단위 : %

	수출			수입		
	대세계	대미	미국 비중	대세계	대미	미국 비중
2018,4	11,1	9,6	18,0	20,9	20,3	8,1
5	11,4	11,6	18,5	25,1	11,4	7,8
6	10,2	12,5	19,7	13,8	9,6	7,8
7	11,3	11,2	19,3	27,7	11,1	7,2
8	9,0	13,2	20,4	20,4	2,2	7,0
9	14,4	14,0	20,6	14,9	-1,2	6,4
10	15,0	13,2	19,7	20,9	-1,8	6,0
11	4,6	9,8	20,3	3,1	-25,0	5,8
12	-4,6	-3,5	18,2	-7,3	-35,8	6,3
2019,1	8,5	-2,8	16,8	-1,0	-41,1	5,2
2	-21,2	-28,6	16,8	-4,9	-26,2	6,1
3	14,1	3,7	16,0	-7,3	-25,8	6,8

자료 : CEIC Database.

지났다. 미·중의 관세부과가 상호 무역에 미친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일단 중국의 대미 수출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고, 오히려 대미 수입의 감소는 직접적이었다고 판단된다.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 미국의 비중이 낮아지고, 최근 대미 수출이 부진하기는 하지만, 우려한 만큼 대폭적인 수출 감소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반면, 중국의 대미 수입은 미·중 분쟁 이후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이어지면서 분쟁이 격화되고, 미·중 무역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알 수 없지만, 미·중 모두 파국으로 가는 것은 원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중간의 분쟁은 무역전쟁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전쟁의 측면이 매우 크다. 분쟁의 이면에는 기술선도국으로의 미국이 첨단기술제품에서조차 무역수지 적자국으로 전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적자의 대부분이 중국에 기인한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즉, 중국이 기술탈취 등을 통해 기술력을 키워왔고, 이를 통해 첨단기술제품에서조차 미국에 대해 엄청난 규모의 흑자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이다. 오바마정부부터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는데, 중국의 기술탈취 등에 대한 방어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제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는 보호무역조치 등을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대응하게 된 것이다.

미·중간 무역분쟁은 점점 패권경쟁의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로서는 중국이 수세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분쟁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이나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며, 중국 제조 2025와 같이 자국산업 및 자국브랜드 보호 육성 등에 대해 공세적 태도를 취할 것이다. 한편, 중국은 당분간 수세적 입장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양회에서 중국 제조 2025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그렇지만 중국이 미·중 분쟁 때문에 산업의 질적 전환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독자적 기술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5. 전환기의 중국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1)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우리 경제 및 산업의 대중국 의존도

우리 경제 및 산업은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 GDP 대비 수출 규모는 37.5%에 달하고, 해외투자기업의 매출은 GDP의 46.3%에 달한다. 특히, 이러한 가운데 해외부문의 중국 의존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중국의 변화

〈표 3〉 우리 수출의 대중국 의존도 변화 추이

단위: 억 달러, %

	중국 수출	홍콩 수출	중국전체	전체 수출	비중 (홍콩포함)	비중 (홍콩비포함)
2019(1~3)	318	78	396	1,327	29.8	24.0
2018	1,621	460	2,081	6,049	34.4	26.8
2017	1,421	391	1,812	5,737	31.6	24.8
2016	1,244	328	1,572	4,954	31.7	25.1
2015	1,371	304	1,675	5,268	31.8	26.0
2010	1,168	253	1,421	4,664	30.5	25.0
2005	619	155	774	2,844	27.2	21.8
2000	185	107	292	1,723	16.9	10.7

자료: 한국무역협회.

에 따라 우리 산업, 더 나아가 우리 경제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수출의 25% 내외를 중국에 의존해왔고, 홍콩을 포함할 경우 30%를 넘어서고 있다. 올해 들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및 석유제품 등의 가격이 하락하여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우리의 전체 수출도 감소했다.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 해외투자기업의 매출에서 대중국 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6.6%로 투자규모가 가장 큰 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변화는 우리의 수출뿐만 아니라 우리의 해외 투자기업을 통해서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2) 중국 경제성장률 저하가 미치는 영향

먼저 중국의 경제성장률 저하는 우리 산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 산업은 이미 중국을 생산기지로서보다 시장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 중국경제 자체도 성장을 수출에 의존하기보다 내수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기 시작했다. 우리 중국 현지 투자기업들도 매출의 60% 이상을 현지 매출에 의존하고 있고, 30% 이상은 한국으로 들여오고 있으며, 제3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중국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경제규모를 생각하면 웬만한 규모의 국가 시장이 매년 하나씩 생겨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만 갖는다면 얼마든지 수출 및 현지 매출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기회가 더 늘어날 수 있고, 특히,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고급 및 프리미엄제품, 각종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6%대로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3) 미·중 무역분쟁이 미치는 영향

미국의 중국 관세부과로 우리 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미국의 관세부과가 중국의 대미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우리의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미국의 관세부과가 중국의 수출에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중국 수출의 대미 의존도, 중국경제의 수출 의존도 등을 고려하면 우리 산업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된다. 물론 미·중 분쟁이 극단적으로 진전되어 중국경제 자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경우 우리 산업도 큰 타격이 예상되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흐를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미·중 분쟁의 과정에서 중국이 보다 시장을 개방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도 없지 않다. 기술보호라는 차원에서 미국보다 우리가 더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중국이 시장을 보다 개방할 경우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의 M&A를 견제함에 따라 중국의 기술추격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미·중 분쟁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므로 향후 전개 과정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

4) 중국의 질적 성장이 미치는 영향

다른 요인에 비해 우리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국의 질적 성장이다. 우리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격차를 지속적으로 줄여왔고, 신산업 부문에서는 오히려 우리를 추월하고 있어 중국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우리 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다. 중국의 질적 성장은 자국 기술 및 자국 브랜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우리 기업들과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미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 독자 브랜드가 부상하면서 우리 기업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고, 중국 자동차시장에서 우리 자동차기업의 매출도 크게 하락했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시장에서도 이미 한·중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완제품뿐만 아니라 각종 부품·소재 및 장비 부문에서도 중국기업이 빠르게 부상하여 우리 기업에 위협을 주고 있다. 과거에도 중국은 빠르게 우리를 추격해왔지만, 우리의 대중 수출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성장해왔다. 이는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들의 부상에 적절하게 대응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중국의 질적 성장 및 구조 변화는 과거와 다른 양상이어서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결국, 앞으로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질적 성장으로 위협도 되지만 시장기회가 확대되는 분야도 존재한다.

5) 새로운 공급사슬 형성이 미치는 영향

중국의 세계적 공급사슬 변화는 우리 산업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생산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도 생산기지를 재편해야 하기 때문

〈표 4〉 중국의 전환기적 현상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위협요인	기회요인
경제성장을 저하	- 대중 수출 위축	- 경제 규모에 비해 여전히 높은 성장세 - 소비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 기회
중국 산업의 질적 성장	- 중국 및 국내외 시장에서 중국 제품 및 기업과 경쟁 심화 - 신산업에서의 중국 선점	- 경쟁에서 살아남는 경우 세계적 업체로 성장 - 부품, 소재, 장비 등에서 새로운 시장 기회 -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중국의 기반기술 활용 가능 - 새로운 세계적 공급사슬 형성으로 우리 기업의 공급사슬 확대
미·중 무역분쟁	- 중국의 수출 감소에 따른 우리 수출의 감소	- 시장개방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중국의 기술 획득 방어 등으로 중국 시장 진출 확대 및 중국 추격 지연

자료 : 필자 정리.

이다. 우리 기업들은 이미 의류, 액세서리 등 경공업 제품뿐만 아니라 가전, 휴대폰 등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동남아 등의 지역으로 이전해왔다. 이에 따라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와의 무역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현재 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어 3번째 수출 대상국이며 중국, 미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이어 5번째 수입 대상국이 되었다. 세계 공급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이 변함에 따라 우리 산업의 공급사슬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공급사슬의 형성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이 존재하지만, 적절히 대응한다면 공급사슬의 확대를 통해 기업이 보다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한국과 중국, 제3국을 연계시켜 주는 적절한 통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대일로를 통해 건설한 인프라는 관련 지역의 생산기지 건설과 중국과의 연계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중국은 부품소재 등의 공급기지뿐만 아니라 시장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중국과 일대일로 관련 국가와의 도로 및 철도 등의 연계는 우리 산업의 세계적 공급사슬에도 매우 중요하다.

(2) 우리 산업의 대응전략

전환기에 처한 중국에 대해 우리 산업은 위협이란 차원보다 기회라는 측면에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먼저 중국이 질적 성장을 통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부문을 우리의 발전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력전략이 필요하며, 중국의 성장에 대응하여 우리의 강점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경쟁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전략을 적절히 구사한다면 세계시장뿐만 아니라 중국시장에서도 우리의 경

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의 변화에 대응해 높은 중국 의존의 위험도를 완화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1) 대중 경쟁전략

질적 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 산업 및 기업이 생존 및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이미 시장이 성숙되었고, 중국이 빠른 추격을 하고 있어 단순한 기술이나 품질로 경쟁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동일 제품이라 할지라도 성능이나 디자인 등에서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가지고 중국 제품 및 서비스와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별화는 기술 및 산업, 문화 등 다양한 요소들이 융복합하여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의 한류가 세계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창의성이 매우 뛰어나고, 이러한 창의성을 이용하여 여타 산업의 차별화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산업의 융복합은 다양한 분야가 결합되는 것으로 개방형 혁신이 기반이 되어야 가능하다. 정부 차원에서도 개방형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기술의 활용 및 사업화, 이업종간의 교류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의 질적 성장으로 중국과의 수평적 경쟁관계로 변모하여 격차전략보다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지만, 아직 일정 정도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향후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는 여전히 격차를 유지 및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이다. 이들 분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들이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메모리의 경우 우리 업체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중국을 앞지를 수 있는 분야가 다수 존재한다. 디스플레이는 중국의 빠른 추격으로 대중국 수출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지만, OLED 등 차세대디스플레이에서는 중국에 비해 우리 기업의 기술력이 앞서 있다. 이차전지는 중국이 자국시장 보호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여 중국 로컬기업이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하였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이다. 이들 분야의 경쟁력에서 중국과 격차를 유지 및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생산공법과 더불어 세부 부품 및 소재 등의 개발, 관련 장비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향후, 해당 제품을 현지 생산하더라도 국내에서 관련 소재나 장비의 수출이 가능하다. 이미 디스플레이 제조장비나 반도체 제조장비는 대중국의 중요한 수출품목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2) 대중 협력 및 활용 전략

중국의 질적 성장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부문 중 많은 부분이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각종 기초기술이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관련 기술 등은 스마트 가전이나 스마트카 등과 같이 우리 제품의 프리미엄화에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적합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요구되기도 한다. 전자상거래, 핀테크, 스마트헬스케어시스템, 공유경제 등은 중국시장 및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플랫폼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벤처 창업시스템은 자금이나 시장에 있어 한계가 존재하는 우리 기업의 창업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중국의 질적 성장으로 한·중 관계에 있어 경쟁이 심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중국의 발전된 기반을 적절히 활용하여 상호 협력을 추진한다면 상호 윈-윈하는 게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전략과 더불어 한·중간 협력할 수 있는 분야의 발굴에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중국이 환경을 강조하면서 친환경 분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한·중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면 우리 환경관련 기업의 시장개척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3) 대중 위험관리 전략


사드 사태에서 봤듯이 중국과 관련하여 우리 경제는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투자기업들은 경영의 현지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중투자가 중국시장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면, 제품개

〈표 5〉 전환기의 중국 대응 전략

	주요 전략 내용
대중 경쟁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요소들과 융복합을 통해 우리 제품의 차별화 추진(기존 제품의 프리미엄화 및 신산업 창출) - 시장성장 가능성이 높고, 일정 정도 경쟁력을 보유한 부분(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 전지 등)에서 초격차 전략 추진
대중 협력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을 개방형 혁신의 플랫폼으로 활용 - 중국의 기초기술,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기반기술 등 활용 - 전자상거래, 핀테크, 스마트 헬스케어, 공유경제 등의 소비관련 시스템을 우리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확대에 활용 - 중국의 벤처 창업시스템을 우리 기업의 창업에 활용(자금 및 시장 접근)
대중 위험관리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크 관리 및 현지 시장 접근을 위해 경영의 현지화, 합작 투자 - 새로운 시장과 생산기지로서 신남방 지역 진출 확대 - 신남방 및 신북방 지역 진출 등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결합

자료: 필자 정리.

발을 포함하는 경영 전반의 현지화가 중요하다. 물론 기업이나 산업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고, 독자경영이 유리한 점도 있겠지만, 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서 중국과의 합자투자를 통한 경영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에 대한 의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신남방 및 신북방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중국 일대일로 정책과 우리 신남방정책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일대일로 등을 통해 새롭게 형성되는 세계적 공급체인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조철

산업통상연구본부·선임연구위원
chch@kiet.re.kr / 044-287-3681

〈주요 저서〉

- 친환경자동차 정책의 평가와 개편방향(2017, 공저)
- 제4차 산업혁명이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 과제(2017, 공저)